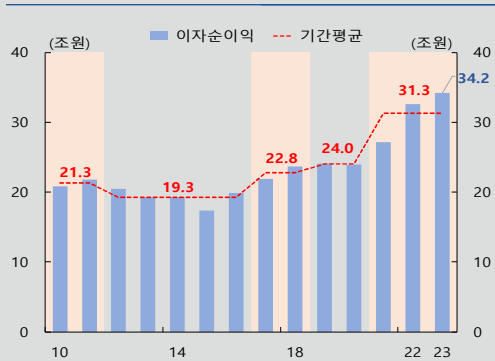


참고 3.

금리국면별 은행 수익성 변화 요인 및 향후 주요 고려사항)²⁾

은행의 이자순이익(수익-비용) 규모가 2023년 34.2조원으로 2010년 이후 금리상승기 중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참고 3-1). 그 결과 최근 금리상승기에 들어선 2021년 이후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내 이자이익 비중은 93.0%로 2010년 이후 장기평균(87.8%)을 상회하였다. 이자순이익 규모는 금리국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자산 증감 외에도 자산구성, 예대금리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금리국면별 대출자산 구성 및 이자이익 변화 등을 살펴보고 향후 수익에 미치는 주요 고려사항을 점검하였다.

참고 3-1. 금리국면별 일반은행 이자순이익(수익-비용) 추이¹⁾²⁾



주: 1) 음영은 금리상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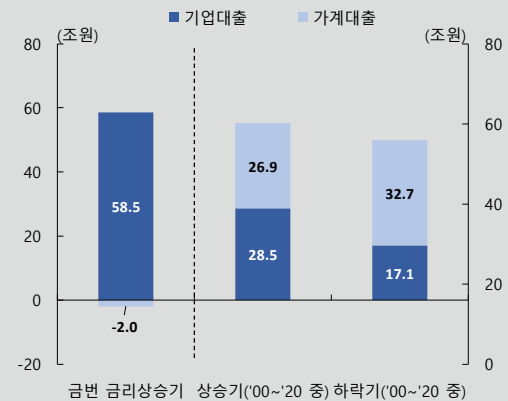
2) 기준금리가 연중 변동한 경우 전년도까지를 금리국면으로 분류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리국면별 특징

금리상승기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위축

은행 대출잔액 변동(12개월 환산기준³⁾)을 금리국면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상승기(금번 상승기 제외)에는 연평균 56.6조원 증가하면서 하락기(연평균 49.7조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되었다. 차주별로 보면 금리상승기에는 경기요인 등으로 기업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대출(연평균 28.5조원)이 가계대출(연평균 26.9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컸다. 반면 금리하락기에는 자산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계대출이 32.7조원 증가하면서 기업대출(연평균 17.1조원)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금번 금리상승기에는 이러한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영업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고금리로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⁴⁾(참고 3-2).

참고 3-2. 금리국면별 차주별 일반은행¹⁾ 대출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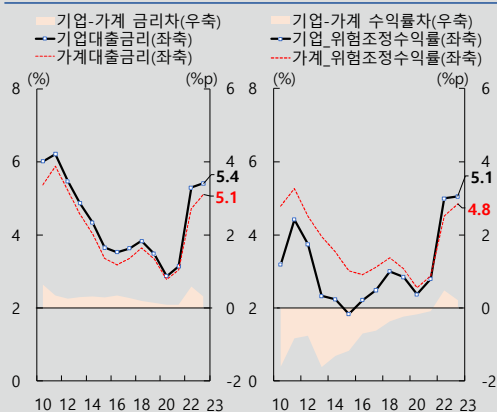
주: 1) 12개월 환산증감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 본고는 박재현·안준기(은행분석팀)가 작성, 신준영(금융기관분석부장)·송길성(은행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본고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 본 참고내 일반은행은 모두 인터넷은행을 제외하였다.
- 3) 금리국면별 대출잔액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 국면별 대출 증감액을 12개월 기준 증감액으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12개월 환산증감액은 「(금리국면별 대출 증감액 / 국면지속기간(월)) x 12(개월)」로 시산하였다.
- 4) 코로나19 이후 기업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향을 포함한 바젤3 위험기준자산 산정방식 도입, 대출 만기연장, 예대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최근 금리상승기 동안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가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⁵⁾ 부실정도에 따라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금번 금리상승기에는 고금리에도 부실 정도가 크지 않아 기업-가계간 위험조정수익률⁶⁾ 차가 2022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었다(참고 3-3).

참고 3-3. 일반은행 차주별 대출금리¹⁾ 및 위험조정수익률²⁾ 추이



주: 1) 일반은행 잔액기준
2) 이자이익률(이자이익/대출금)-고정하여신비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 확대

예대금리차도 이자순이익의 주요 결정요인인데, 국내은행의 경우 대출 내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 내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비중도 높아, 금리 상승(하락)시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금리상승기에는 기준금리가 큰 폭(+300bp)으로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2010년 이후로는 가장 크게 확대(+38bp)되었다(참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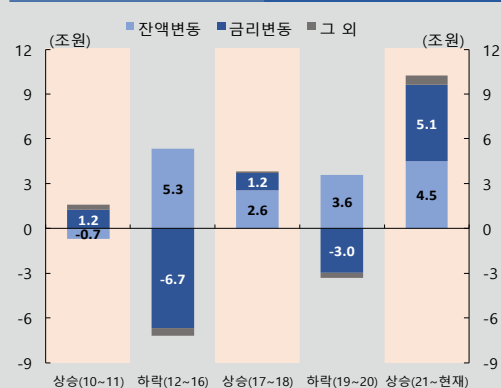
참고 3-4. 금리국면별 기준금리 및 예대금리차 변동폭¹⁾

	10.9 ~12.6	12.9 ~17.9	17.12 ~19.6	19.9 ~21.7	21.9~
기준금리	+125	-200	+50	-125	+300
예대금리차	+22	-56	+0	-16	+38

주: 1) 예대금리차는 예금은행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예대금리차가 큰 폭 확대되면서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리국면별⁷⁾ 이자순이익을 대출잔액과 금리변동 요인으로 분해했을 때⁸⁾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금리국면을 보면 대출잔액 증가가 이자순이익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요인은 금리상승(하락)기에 증가(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 요인의 기여도(+5.1조원)가 과거 상승기보다 큰 폭 확대된 가운데 대출증가에 따른 잔액 변동 요인(+4.5조원)도 가세하였다(참고 3-5).

참고 3-5. 금리국면별 연도별 이자순이익(수익-비용) 변동 요인 분해¹⁾



주: 1) 음영은 금리상승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 2010년 이후 일반은행의 기업대출(잔액기준) 평균금리는 4.43%, 가계대출(잔액기준) 금리는 4.15%로 기업대출 금리가 다소 높다.
- 이자이익률(이자이익/대출잔액)에서 대손률(대손비용/대출잔액)을 차감한 값으로 위험수준을 반영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차주별 대손률 대신 차주별 고정하여신비용을 사용하였다.
- 요인분해를 위해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기준금리가 연중 변동한 경우 전년도까지를 금리국면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 중 기준금리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를 금리하락기로 설정하였다.
- 요인분해는 다음과 같이 시산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 원화대출금, 원화대출금 잔액과 이자수익, 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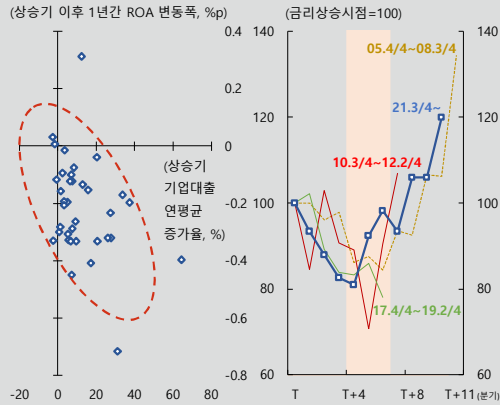
$$\Delta \text{이자순이익 변화} = \Delta(\text{잔액} * \text{이자율}) = \Delta(\text{잔액}) * \text{금리} + \text{잔액} * \Delta(\text{금리}) + \Delta(\text{잔액}) * \Delta(\text{금리})$$

향후 수익에 미치는 주요 고려사항

대손비용 상승

금번 금리상승기 확대됐던 기업대출이 향후 은행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금리국면을 살펴보면, 금리상승기 기업대출 증가폭이 클수록 상승기 이후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 같은 수익성 저하는 대출금리 하락 외에도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기 중 이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여신⁹⁾ 추이를 보면, 금리상승기 직후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리상승이 시작되고 4~6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3-6). 이는 금리상승기 시차를 두고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대손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은행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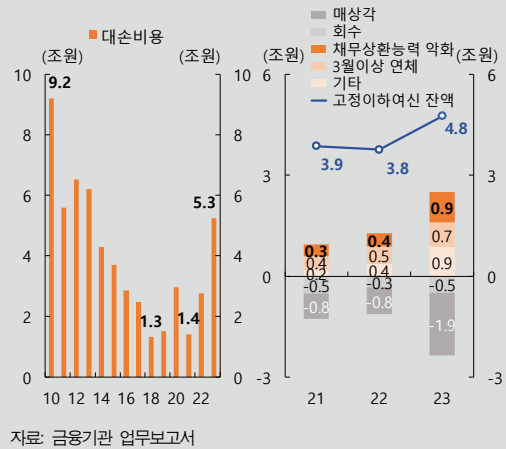
참고 3-6. 기업대출과 수익성 관계 및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규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사

금번 상승기에도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이자비용부담 증대와 이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3월 중소기업대출 중 대출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이 절반(58.3%)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2024년 2월 기준 0.59%로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¹⁰⁾를 지속하고 있다. 법인 파산(법원접수 기준)은 2023년 들어 1,657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65.0%)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대손비용¹¹⁾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1.4조원에서 2023년 5.3조원으로 3배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증감 요인을 보면 부실위험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사유¹²⁾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¹³⁾(참고 3-7).

참고 3-7. 일반은행 대손비용 추이 및 고정이하여신 요인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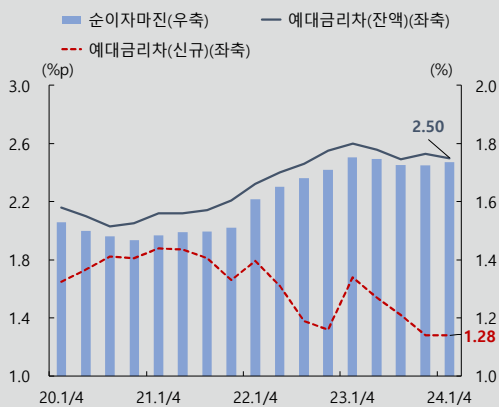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9)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재조정, 법정관리·화의 등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을 의미한다.
 10)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 전체기업 21년 0.26 → 22년 0.27 → 23년 0.41 → 24.2월 0.59
 11) 향후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부실규모를 추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이다.
 12)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약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을 뜻한다.
 13) 2023년 기준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인한 고정이하여신 증가는 약 0.9조원으로 전년(0.4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예대금리차 축소

최근 들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2023년 1/4분기 이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¹⁴⁾ 향후 예대금리차의 수익성에 대한 기여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참고 3-8). 또한 최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축소시키고 있어 자산확대 등 양적효과도 과거에 비해 제약될 수 있다.

참고 3-8.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차 추이¹⁾



주 : 1) 순이자마진은 일반은행(인터넷은행 제외), 예대금리차는 예금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사점

금번 금리상승기에는 과거보다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는데, 기업대출의 부실 정도도 크지 않아 수익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금리상승기중 예대금리차도 2010년 이후로 가장 크게 확대(+38bp)되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취약부문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규모 및 예대금리차 축소 정도가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부문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과거 금리상승기에 비해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취약부문의 대손비용 증가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한 대출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 미래의 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기간별 수익구조를 평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산업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14)

신규 예금 및 대출 금리 추이(예금은행¹⁾ 기준, %)

	23.1/4분기	2/4	3/4	4/4	24.1/4
예금금리	3.64	3.56	3.71	3.93	3.63
대출금리	5.32	5.10	5.13	5.20	4.91
기업	5.36	5.20	5.24	5.33	5.07
가계	5.22	4.82	4.84	4.97	4.56

주: 1) 예금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자료: 한국은행